종로노인복, 복지·문화 '집약처' 발돋움

개관 10주년 맞이 비전 발표

9440명 어르신 회원 수
1840개 제공한 일자리
53건 시니어 힐링 등 외부사업

2007년 개관 후 올해 10년
'신노인상' 정립 목표 삼아
어르신 건강 · 일자리 '집중'
"증축 건물은 시민에 개방할 것"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4일 '2017년 기자간담회'서 "종로구 노인복지 ·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문화복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UN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14%부터로 서울시는 10년 후 14.7% 베이비붐 세대(서울시, 2016)가 고령인구로 편입,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는 노인인구 비율 15.6%(2017)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서울연구원의 '고령친화형 마을 만들기' 연구 보고(2012) 결과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마을 모델로 종로구 이화동이 꼽혔다. 이 같은 고령친화 종로의 중심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2007년 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 운영 복지관으로, 이화동 25-1번지 일대 대지 2188.4㎡ · 연면적 2951㎡ 규모로 조성됐다. 개관 당시 일일 평균 이용자 500명, 회원 3,314명을 보유한 마을 사랑방서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1,500명, 회원 9,000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개관 초기 3,000명을 웃돌던 회원이 현재 9,000명을 바라보고 있어 복지관 수용공간이 턱없이 모자랄 정도"라며 "2015년 증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로노인복지관은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올 여름 증축 개관식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증축 공간엔 △목욕탕 · 찜질방 △대극장 △대규모 급식소 등을 마련, 어르신들 요구를 십분 반영했다.

이해경 종로노인복지관 부장은 "대극장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대여를 준비중이다. 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도 지역 내 저소득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복지관보다 '열린복지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로노인복지관이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는 단연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플러스카페, 골목길해설사, 종로&장금이, 화(化)가 자란다, 사랑 한 주걱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5 · 2016년 개점한 플러스카페 1 · 2호점서 50여 명이 넘는 어르신을 고용했다. 올해 8~9월 증축되는 종로노인복지관 내에 3 · 4호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 최초로 진행한 '골목길해설사' 사업도 2012년부터 해마다 전문해설가를 양성,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골목길해설사 프로그램은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시 우수프로그램 표창 및 같은 해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협회 전문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10년 간 종로노인복지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신노인상'은 정관 스님이 제시한 건강한 노인상으로 일자리를 통해 자립심과 자존감이 충만한 젊은 어르신을 뜻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주는 돈을 그저 받기만하는 수급자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생각한 단어다.

이에 정관 스님은 신노인문화 홍보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신노인 인식개선 걷기대회를 개최,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축제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향후 미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종로노인복지관의 고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관 스님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며 노인자살 등 문제도 일자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복지관은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겪었거나 살림이 어려운 어르신 위주로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부여한다. 직업활동을 하면 신체 운동, 말벗 사귀기, 경제적 이익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은 신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심신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 복지 '금융역량 강화' 도입 과제

장동호 교수, 조계종복지재단 14일 미래복지포럼서 강조

가계부채가 극심해지는 사회 현실 속 가정 내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 시설의 새 역할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2월 1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 주관한 미래복지포럼 '금융빈곤시대, 사회복지의 역할은?'서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복지시설의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건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인 135.9%를 넘어섰다"며 "국내 여러 연구들이 연체 · 채무불이행 등 상황이 개인의 극심한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가정폭력, 범죄, 자살, 가족갈등, 가족 해체 등 유발 · 심화한단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를 든 금융사회복지는 개인 · 가족 · 지역사회가 양질의 △금융서비스 △자산형성 기회 △금융교육 등에 접근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결국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복지 정책이다.

특히 장 교수는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인프라를 갖춘 사회복지기관을 간접 지원해 저소득층 채무조정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면서 보편적으로 퍼졌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딧 △개인발달계좌 △금융교육 △재무설계 및 부채상담 △금융 멘토링 △금융 자조집단 프로그램 △금융 코칭 △금융 치료 △금융사례관리 △무료세금신고자원봉사 서비스 등이 있다.

장 교수에 따르면 2015년 8월~2016년 2월 12개 복지기관 363명이 참여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서 최대 10개월 동안 △금융교육 △금융상담 △금융사례회의 △단기저축지원 프로그램 △공동 사업설계 △정기 간담회 △성과 발표회 등 지원한 결과, 이용자의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감소했다.

장 교수는 "참가자들이 월지출과 연지출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재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소비생활이 가능하단 사실을 깨닫고 만족도가 올랐다"며 "복지시설서 지원받은 금액이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는 반응도 상당수로, 복지시설의 금융지원제도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신행·복지 소식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계율산림' 봉행

출가열반절 맞아 3월 5일 입재, 11일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조계종 종무원조합, 대한불교청년회가 주관하는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가 3월 5일과 11일 펼쳐진다. 출가열반절을 맞이하는 입재법회는 3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입재법회에서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법사로 나서 '신행혁신을 통한 붓다의 삶'을 주제로 법문한다.

회향법회는 3월 11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법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회는 중앙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가족, 조계종 종무원조합 및 가족 등이 참석한다.

중앙신도회 측은 "단 8일간의 출가열반절 기간이라도 불법을 실천하고 수행을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금번 법회는 보다 지속적인 신행실천과 계율의식 함양은 물론 소속 구성원들의 종단 소속감과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주요사업인 '1인 1불자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지역법회 창립… 신행 문턱 낮춘다

지역별 도반모임 운영, 2월 26일 창립식

봉은사가 일반신도들이 쉽게 신행 ·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법회를 창립한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불자 및 새신도들에게 다양한 신행 · 봉사모임 기회를 제공할 지역법회 창립식을 2월 26일 오후 2시 법왕루에서 개최한다.

봉은사는 그동안 불교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수료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회 조직단위 '연등'으로 편제, 다양한 신행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기초학당을 나오지 않거나 '연등' 활동을 하지 않는 신도들의 신행 및 봉사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역법회를 창립함으로써 지역별 도반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신도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법회는 봉은법회와 더불어 신도회 하부 조직으로 편성돼 각 지역별 법회와 모임을 진행한다. 봉은사 불자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새신도 및 봉은법회 미활동 신도) 참여 가능하며, 창립 전 사전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법회 사무실(02-541-7278~7281)과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법정 스님 7주기… '무소유' 향기 세상에

법정 스님 입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널리 알리는 추모법회와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2월 22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법정스님 7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추모법회는 평소 법정스님이 강조한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간소하게 봉행되며, 지난 2004년 12월 '지혜로운 삶의 선택' 주제로 한 스님의 생전법문을 영상으로 편집해 신도들과 함께 시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상사는 26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도종환, 함민복, 박형준, 박소란, 함명춘 등 국내 시인들과 작가 편혜영 씨가 참여해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의 구절을 선정해 낭송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찬범음의례교육원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Bulchan buddhist Ceremony Education Institute
한국불교 전통 의식범례를 온전히 복원 전승하는 승가교육대도량

스님이라면 누구나 염불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지요?

- 염불을 잘하고 싶은데 ..... (범패)
- 회심곡도 잘하고 싶은데 ..... (회심곡)
- 북도 치면서 염불을 신나게 하고 싶은데 ..... (소북, 법고, 장단)
- 의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해야 하는데 ..... (불교의식이론)

배우려면 어디로 가지? 하고 의문이 든다면
불찬범음의례교육원을 검색해 보세요.

NAVER 불찬범음의례교육원 검색
DAUM 불찬범음의례교육원
YouTube 불찬범음의례교육원

☎ 문의 02-831-1057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